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방법에 따른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학습 효과 비교

강성희[†]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방법에 따른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학습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수 중심의 설명형 강의법(A 그룹)과 학생 주도의 참여 학습 방법(B 그룹)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그룹간·그룹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교수 중심 수업이 인지적 측면에 효과적이고 학생 주도 학습이 정의적 측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측면에서는 두 그룹 모두 양호 정도는 개선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통합적 도덕성 교육으로서 인터넷윤리 교육이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이 주가 되면서 교수자가 필수적인 주요 지식 등을 보충하는 식의 수업 운영이 바람직하며, 행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인터넷윤리 교육, 통합적 도덕성 교육, 교수-학습 방법

A Comparison of the Learning Effects on Knowledge, Affectivity and Behavior depending on Internet Ethics Education Method in the University

Sunghee Kang[†]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examine the knowledge, affectivity and behavior of students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net ethics education depending on education method. The class for A group was being taught by tutor-oriented teaching method based on explaining and the class for B group was characterized by student-oriented studying based on participation of students. Upon comparing the changes of the knowledge, affectivity and behavior after Internet ethics education, the tutor-oriented teaching method was more effective for knowledge in Internet ethics education and the student-oriented studying based on participation of students was more effective to change the student's affectivity. In the behavior, both A group and B group had a tendency to be changed positively after education,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rder to produce actual results on Internet ethics education as integrated morality education,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join and take a leading role in the class and for tutor to teach students supplementarily what they need to know essentially.

Keywords : Internet Ethics Education, Integrated Morality Education, Teaching-Learning Methods

[†] 정 회 원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논문접수 : 2013년 07월 08일, 심사완료: 2013년 09월 25일, 게재확정: 2013년 09월 26일

1. 서론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의 편리와 다양한 혜택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나,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중독, 저작권 침해,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유해정보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많은 피해 또한 가져왔다.

인터넷의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도 인터넷윤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내 대학에서 인터넷윤리와 관련된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윤리 교육은 크게 보면 도덕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지·정의·행동이 통합된 통합적 도덕성 교육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통합적 도덕성 이론이 적용되는 인터넷윤리 교육이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찰이 특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수업에 있어서 교육 방법에 따른 학습 효과를 통합적 도덕성 이론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교수 중심의 설명형 강의법과 학생 주도의 참여 학습 방법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인터넷윤리 교육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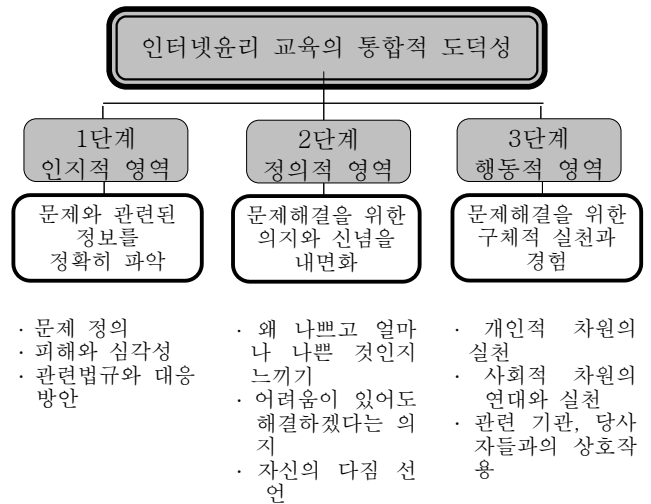
2. 인터넷윤리 교육 개요 및 현황

2.1 통합적 도덕성 교육으로서의 인터넷 윤리

통합적 도덕성 교육이란 토마스 리코나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인격의 구성요소를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으로 보고 세 가지 구성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이 선인 줄 알아야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비로소 선한 사람, 도덕

성을 제대로 갖춘 사람 또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덕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합적 도덕성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10].

인터넷윤리 교육에 있어서도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나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마음 속 깊숙이 느끼고 해결하려는 강한 의욕을 가져야 하며,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올바른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9].



<그림 1> 인터넷윤리 교육의 통합적 도덕성

따라서 통합적 도덕성이 적용되는 인터넷윤리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적절히 감동과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윤리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알고, 느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2.2 인터넷윤리 교육 방법

통합적 도덕성 이론이 적용되는 인터넷윤리 교

육이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성 여부에 따라 교수 중심의 객관주의적 교수-학습과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5]. 교수 중심의 객관주의적 교수 학습의 대표적인 예는 설명형이나 시범형의 형태를 들 수 있고,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적 교수 학습에는 활동형, 탐구형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윤리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수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1][11].

<표 1> 인터넷윤리 교육의 교수법

교수법	교육내용
설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설명 · 수업 중 짧은 시기 동안 이용 · 다른 기술과 병행 · 사실적인 내용 전달에 효과적 · 주제의 소개, 개념의 정의, 내용 복습, 어려운 개념 설명 · 수업 종료 시 이용
시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원리 등을 예시하고 극적으로 제시, 학생들의 지적 기능 발달 · 시범내용의 관찰을 통해 동감하고 행동의 성취를 강화 ·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 신문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
활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체험 및 활동 학습의 기회 제공 · 토론, 역할놀이, 경진대회 등
탐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의 지식 발견 · 탐색할 주제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탐구 · 교수자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

2.3 국내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현황

국내에서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본격화 된 것은 2005년을 전후해서이다. 2004년 7개 대학을 중심으로 인터넷윤리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66개 대학이 인터넷윤리 관련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대략 120여 대학이 인터넷윤리를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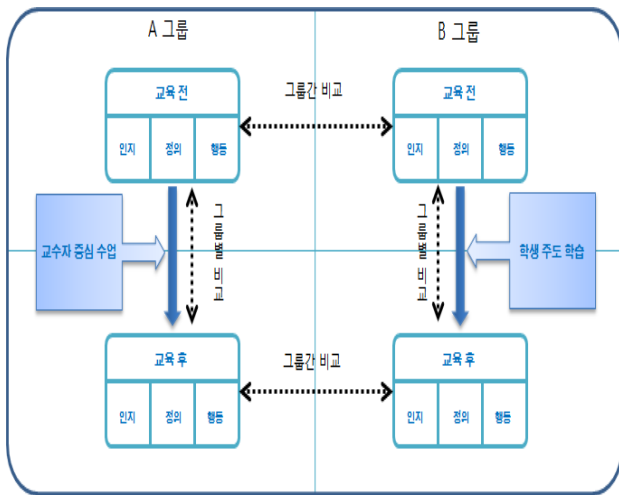
개설된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목의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강좌가 토론 및 실습을 병행하기도 하나 전체 개설 강좌의 89%가 설명형의 강의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3].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윤리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법이 타교과에 비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대부분이 단순한 설명형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교과목의 본래 취지보다는 다소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윤리 교과에 대한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3.1 연구 기본 틀

본 연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방법에 따른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A 그룹의 경우는 교수자 중심의 설명형 강의법을 기반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을 진행하였고, B 그룹의 경우는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 학습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수업 전 A, B 그룹에 대해 인터넷윤리에 대한 인지·정의·행동적 영역별 사전 조사를 하고, 각 그룹에 대한 수업 진행 후 A, B 그룹에 대해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그룹간 인지·정의·행동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인터넷윤리 교육 방법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주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동일 그룹에서의 인지·정의·행동 변화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윤리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체 연구의 기본 틀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터넷윤리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 전후 비교 연구의 기본 틀

3.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인터넷윤리 강좌 수강 학생으로, 2012학년도 1학기 38명(A 그룹)과 2012년도 2학기 39명(B 그룹) 두 그룹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 전 두 그룹에 대한 인터넷윤리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사전조사 결과(<표 3>), 두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그룹 비교를 위해 다른 교육 내용은 대학 인터넷윤리 교재[8] 중 인터넷의 역기능에 해당되는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유해정보 유통, 사이버범죄(사이버 폭력, 인터넷 사기), 정보보안(해킹, 악성코드)으로 제한하였으며, 학습 목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하였다.

A 그룹의 경우는 교수자 중심의 설명형 강의법을 기반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재 중심으로 역기능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들 그리고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설명형 강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주제와 관련된 기사 및 인터넷 자료, 동영상 등 보조 자료를 이용한 시범형 방법도 적절히 활용하였다.

B 그룹의 경우는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 학습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팀별로 역기능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택한 후, 교재 및 기타 자료 등을 통

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대처 방안 및 관련 법률 등을 습득하게 하고, 해당 영역에서 특정한 핵심 탐구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팀별 핵심 탐구 주제는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학습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요 테마로 하고, 관련 정보수집, 정보 분석 및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발표하는 탐구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탐구 주제에 따라 해당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 모의재판, 실천수칙 작성, 역할놀이, 가상실험 등 다양한 활동형 과제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다. 팀별로 자신의 주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핵심 탐구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교수자는 발표 내용에 대한 정리 및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한 수정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3 연구 도구

인터넷윤리 관련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에 관한 연구 도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윤리 Internet Ethics”라는 인터넷윤리 교재 내용[8]을 기반으로, 중학교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윤리의 통합적 도덕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7]와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비교[4] 및 일반계 고등학교와 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6]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초점을 둔 저작권 침해 범위를 인터넷 역기능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구 대상인 대학생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인지적 영역 측정은 인터넷윤리 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예를 들면 “피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와 같이 단순 지식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의적 영역은 해당 영역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감정적 영역에 관한 설문으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으면 죄책감이 든다.”와 같은 유형의 문항이다.

행동적 영역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유해한 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옮기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을 위한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검증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검사

영역	전체 문항 수	내용별 문항수						신뢰도
		인터넷 중독	개인 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유해 정보 유통	사이버 범죄	정보 보안	
인지	20	2	3	5	3	3	4	.893
정의	20	3	3	4	3	4	3	.910
행동	20	3	3	4	3	4	3	.875

3.4 자료 분석 방법

인지·정의·행동 영역의 각 문항은 20개로, Likert식의 5단계 평정척도(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지수가 긍정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내며 영역별 점수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문제 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분석 방법은 교육 전후 그룹간, 그룹별 인지·정의·행동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그룹간 교육 전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방법을, 그룹별 교육 전후의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연구 결과

인터넷윤리 교육 전 두 비교 그룹에 대한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사전조사 결과, 두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교육 전 그룹간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점수의 기술 통계

	그룹	평균	표준편차	t-검정	
				t	p
인지	A	2.7400	.37378	.854	.400
	B	2.6375	.29183		
정의	A	3.2133	.24746	1.204	.238
	B	3.1125	.21871		
행동	A	2.8933	.2890	-.933	.358
	B	2.9875	.27295		

(유의주준 $p < .05$)

인터넷윤리 교육의 수업 후 두 비교 그룹간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변화를 비교해보면, 인지의 경우는 교수 중심 수업의 A 그룹이 3.25점으로 B 그룹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고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164, p=.000$). 정의적 측면에서는 학생 주도 학습의 B 그룹이 3.55점으로 A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055, p=.049$). 그러나 행동적 영역에 있어서는 A, B 그룹 모두 양호 정도는 개선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 교육 후 그룹간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점수의 기술 통계

	그룹	평균	표준편차	t-검정	
				t	p
인지	A	3.2467	.26957	5.164	.000
	B	2.7875	.22472		
정의	A	3.3067	.30111	-2.055	.049
	B	3.5500	.35402		
행동	A	2.9333	.26637	-2.004	.055
	B	3.1000	.19322		

(유의주준 $p < .05$)

그룹별로 인터넷윤리 수업 전후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비교 결과, 교수 중심 수업의 A 그룹의 경우 인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교육 전 2.74점에서 교육 후 3.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t=3.327, p=.005$). 정의 및 행동적 영역에 있어서는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 수치상

으로 양호 정도는 개선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교육 전후 그룹별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점수의 기술 통계(A 그룹의 경우)

	교육전	교육후	t-검정	
			t	p
인지	2.7400	3.2467	-3.327	.005
정의	3.2133	3.3067	-1.200	.250
행동	2.8933	2.9333	-2.103	.054

(유의주준 $p < .05$)

또한 학생 주도 학습의 B 그룹의 수업 전후 변화에 있어서는 정의적 영역이 수업 전 3.11점에서 3.55점으로 통계적으로 고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4.920, p=.000$), 인지 및 행동적 영역에 있어서는 수업 후 양호 정도가 개선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교육 전후 그룹별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점수의 기술 통계(B 그룹의 경우)

	교육전	교육후	t-검정	
			t	p
인지	2.6375	2.7875	-1.581	.135
정의	3.1125	3.5500	-4.920	.000
행동	2.9875	3.1000	-2.058	.057

(유의주준 $p < .05$)

이러한 인터넷윤리 수업 전, 후 그룹간, 그룹별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비교 결과는 교수 중심의 수업이 인지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학생 주도 학습이 정의적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4.2 연구 분석 및 제언

인터넷윤리 교육은 인지·정의·행동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덕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교과에 비해 교수 및 학습 방법 등이 특히 중요한 교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방법을 크게 교수 중심 강의와 학생 주도 학습 유형으로 나누어 두 비교 그룹을

대상으로 인지·정의·행동 영역이 교육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룹간, 그룹별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윤리 교육에 있어 교수자 중심의 설명형 강의법이 인지적 측면에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평가 방법에 있어 교수자가 평가 문제를 출제하였기 때문에 교수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교수자를 통해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식 전달 효과면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 방법이 인터넷윤리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정의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수용자로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고 마음가짐에 대한 다짐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조사 결과 수업 전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연구기간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동적 변화를 확인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지적, 태도적 측면의 변화가 있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행동적 변화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하여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습관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습관화되어 버린 것을 단기적으로 고치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심각한 제약이나 피해 등을 경험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습관이 고착되기 이전의 교육이 중요하며 이는 인터넷윤리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학생 주도 학습이 정의적 측면에, 교수 중심 수업이 인지적 측면에 효과적인 방법임이 드러났다. 현재 대학 인터넷윤리 교과의 대부분이 교수자 중심의 단순한 설명형 강의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윤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이 주가 되도록

하면서 교수자가 필수적인 주요 지식 등을 보충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지식과 태도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좀 더 행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교과 과정을 직접 체험하거나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학 인터넷윤리 수업에 있어서 교육 방법에 따른 학습 효과를 통합적 도덕성 이론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교수 중심의 교수 방법과 학생 주도의 참여 학습 방법에 따라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그룹간·그룹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학생 주도 학습이 정의적 측면에 효과적이고 교수 중심 수업이 인지적 측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측면에서는 수업 전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통합적 도덕성 교육으로서 인터넷윤리 교육이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이 주가 되면서 교수자가 필수적인 주요 지식 등을 보충하는 식의 수업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교과 과정을 직접 체험하거나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인터넷윤리 조기 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강성희 (2008). 대학에서의 인터넷윤리 교육. 인터넷윤리 워크숍.
 [2] 강성희 (2008).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인터넷윤리 워크숍.
 [3] 강성희 (2013).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정보

처리학회지.20(2), 33-41.

[4] 강성희 (2013).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인지·정의·행동 영역별 비교(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 학술지, 16(1), 43-50.
 [5] 장인애 (1998).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6] 송보명 (2010). 일반계 고등학교와 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7] 유민희 (2009). 인지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8]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2011). 인터넷윤리 Internet Ethics. 경기: 이한출판사.
 [9] 임상수 (2003). 정보윤리교육의 방법론 모색. 한국국민윤리학회 학술지, 54, 261-291.
 [10] 최경애 (2005). 도덕과 교육에서 인격교육론의 의미와 중요성:리코나의 인격교육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11] 추병완 (2001). 정보윤리교육론. 서울: 울력.



강 성 희

1991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사)
 1995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2001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컴퓨터학과(공학박사)
 2001~현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관심분야: 인공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데이터마이닝, 인터넷윤리 교육
 E-Mail: kangsh@mju.ac.kr